

2017년 5월 12일, 성산읍 신천리 신천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
강춘심(여, 1948년생, 성산읍 신천리)

- 줄거리: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어떤 집에 묵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마를 삶아서 주는데 자신에게 마 꽁지를 주는 것을 보고 너무 섭섭해서 그냥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한다.

**[제보자]** 우리 할망덜한티 옛날 들은 말이주.

그 전에, 어떤 나그네가, 가름을 못 촇안, 사름 사는 딜 못 촉으니까, 산 중에 불빛 빛에, 그 집을 찾아가니깐, 마 허는 집이니까, 집을 멋입젠 헨 멋이니까.  
이제 듯날은, 마를 파레 가는 거라. 그디 주인이 머리는 자기가 먹곡, 땔련에.  
솟디 낳 땔린디, 자기가 먹곡, 이녁네 아덜은, 가운데, 이 몸뚱일 주고, 자기는,  
그, 저, 꼴랑질 젖젠 허는 거라.

나그네는, 꼴랑질 주니까, 그때 듯날은 나와 벳젠. 게난 옛날은 김삿갓 모냥으로, 경혜네 헷젠 말은 들어낫어. 그런 사름이 잊어낫젠.

**[조사자]** 그 나그네 이름이 뭐마씨?

**[제보자]** 이름을 어떻 행 알 말이니게. 그, 옛말로 들어나난 말로 곤는 거주.

**[조사자]** 꼴랑지 주난, 그냥 뒷날 그 집에서 나와 분 거마씨?

**[제보자]** 응, 나와 분 거라. 너미 섭섭헤가지고. 그런 말은 들어낫어.

- 핵심어 : 나그네, 마, 꼴랑지, 산, 김삿갓